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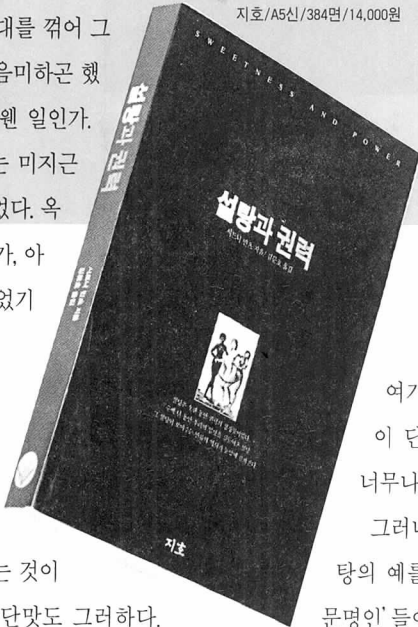
몇 년 전 여행하는 길에 옥수수대의 껍질을 벗겨 씹은 적이 있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낸 사람이라면 단맛을 옥수수대 속살에서 발견했던 기억이 있으리라. 굵은 모래알 만한 사카린도 흔치 않았던 때, 나무를 하러 갔다가 풀을 베러 갔다가 또는 산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 밭가에 늘어선 늘씬한 옥수수대를 꺾어 그 속살을 질경거리며 '단맛'을 음미하곤 했던 기억 말이다. 그러나 이게 웬 일인가. 여행길에 씹은 옥수수대에서는 미지근한 맹물 맛마저 맛볼 수가 없었다. 옥수수 종자가 달라졌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혀에 무슨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가.

'단맛'의 권력 이미지

지극히 자명한 것으로 보이는 일상의 습관이나 행동이 문화적 '훈련'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다. 단맛도 그러하다. 물론 일정 정도의 당분(糖分)은 우리 인체에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소위 문명인이 맛보고 있는 '과도한 단맛'은 우리 몸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혹은 경제적 권력의 상징을 전유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은 단맛이 아니라 단맛이 지닌 권력의 이미지다. 그리고 이미지의 소비에 익숙해짐으로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혀의 감각마저 변질돼버린다. 옥수수대에서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설탕이 제공한 새로운 맛, 즉 권력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듯 '사소한' 현상을 통해 우리의 감각 구석구석 파고든 권력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한다. 역사인류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그는 인간이 단맛에 길들여지는 과정과 그 정치·경제적 메커니즘을 재구성한다. 늘 그렇듯이 배후(기원)를 밝히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음험한 본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겉껍이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당연해 보이는 것은 그저 당연하게

김문호 옮김
지호/A5신/384면/14,000원



설탕의 소비 뒤에 도사린 자본의 논리

그런데 '고귀한 문명인'들의 사치와 취향을 따라잡으려는 '덜 고귀한 인간'의 노력이 이어짐으로써 고가사치품은 점차 그 상징적인 중요성을 상실해 간다. 설탕도 예외가 아니다. 값이 싸지면서 권력의 상징으로서 잠재력은 쇠퇴하고 이제 이익의 원천으로서 잠재력이 증대한다. 자칭 '고귀한 문명인'들은 다른 계층과 자신을 구별시켜주는 권력의 상징을 찾아 나선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런 끝없는 구별짓기

'단맛'으로 위장한 권력의 실체

시드니 민츠의 《설탕과 권력》을 읽고

정선태 | 한신대 문예창작과 강사

문명인이 맛보고 있는 과도한 단맛은 우리 몸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을 전유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설탕과 권력》은 우리의 감각을 파고든 권력의 실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역사인류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저자는 인간이 단맛에 길들여지는 과정과 그 정치·경제적 메커니즘을 재구성하고 있다.

여기고 살면 그만이다. 인간이 단맛을 좋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다시 설탕의 예를 보자. 유럽의 '고귀한 문명인'들이 식탁에서 단맛을 즐기

는 동안 카리브 사탕수수 농장의 노예 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한다. 부르디외식으로 얘기하자면 '구별짓기'가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한쪽은 사치와 취향을 끝없이 재생산하고 다른 한쪽은 이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상품을 생산한다. 물론 이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에서 철저히 소외된다. 카리브의 노동자들이 극소량의 설탕만을 소비하는 것처럼.

를 조장하는 것일까. 이 점이 중요하다. 쾰바르트는 사치야말로 자본주의를 이끄는 주요 동력이라고 지적했거니와, 욕망(사치)의 재생산은 욕망하는 자의 주체적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다. 욕망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다. 치밀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 우리의 욕망은 조종되고 재생산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며, 설탕의 소비라는 사소한 현상 뒤에 자본과 결탁한 권력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생활여건의 변화—지배자 모방 욕구—세계경제의 발전—자본주의 정신의 확산'이라는 연결고리아말로 저자가 이 책에서 밝히고자 했던 핵심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들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따라서 옥수수대에서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며, 비가시적인 권력(자본)의 조종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결국 옥수수대에서 설탕으로, 그 단맛의 '질적 변화'는 욕망의 자본주의화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국주의 함대가 귀부인이 즐기는 찻잔의 단맛을 채우기 위해서만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른 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자본(권력) 아래 지배치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